https://namu.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식지
Nature and Natural History

2024 가을호 **제82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자연과 자연사

발행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편집 | 학예연구팀 발행일 | 2024. 9. 10.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전화 | (02)330-8899 팩스 | (02)330-1736

02 | 특별기획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꿈
04 | 자연사이야기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다녀와서
06 | 전문가 기고 -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하며
08 | 강연 후기
10 | 교육
12 | 전시
13 | 지난 행사
15 | 새소식
16 | 관람안내



01 특별기획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꿈

노정래 관장



서대문구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구민에게 큰 복입니다. 서울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 동네 마실 가듯 언제든지 다녀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자연사 얘기를 풀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리 못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발굴된 자연사에 관한 소장품이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연사 얘기를 펼쳐 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으니 이 역할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틀에서 자연사를 볼 수 있으니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위 몇 분께 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니 축하와 함께 "박물관이 적자일 텐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지 고민해 봤어?" 등의 조언이 따라왔습니다. 시작부터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연사박물관은 수익을 낼까요? 런던자연사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런던 시민은 물론 전 세계 모두에게 무료입니다. 이 박물관의 전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세계 어느 박물관과 비교 불가입니다. 지구의 역사, 동·식물의 진화를 이해하는 전시물과 소장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무료입니다.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을 봅시다. 프랑스에는 자연사박물관과 진화과학관이 있습니다. 이곳 입장료가 각각 11파운드, 프랑스 물가에 비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관람객은 대부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어린이 단체이며, 청소년과 외국인이 일부 있습니다. 이 두 박물관 모두 자연을 배우는 곳입니다.

박물관과 유사한 기관은 어떤 상황일까요? 도서관은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운영합니다. 입장료도 없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무료라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의 폭은 더 커집니다. 학생,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 곳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곳간에 채워 놓듯 잠재적 재화인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커서 신약을 개발하고,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적자인 도서관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보건소도 적자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보건기관입니다. 공중보건의 혜택을 받은 주민이 건강해진 만큼 병원을 덜 갈 테니 정부가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건소는 엄청난 흑자입니다. 여러 공공 의료정책 덕인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해 이제 세계에서 5위 안에 듭니다. 공공 의료와 예방의학의 힘이 아닐까요?

세계 모든 자연사박물관이 적자입니다. 우리 박물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람객이 오면 올수록 적자의 폭은 커집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요금과 화장실에서 쓰는 수도 요금이 관람객 수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적자의 폭이 커져도 좋으니 관람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현재의 적자가 클수록 그만큼 훗날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나 보건소 운영과 같은 논리로 보면 됩니다.

인구 감소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박물관의 관람객 숫자가 다소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한 해 38만 명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다녀간 후 영감을 받아 고생물학자, 기후학자, 생태학자, 진화학자 등 자연과학자를 꿈꿔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결과가 인류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런 무형의 가치를 일구고,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가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박물관에서 적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차게 박물관답게 운영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소통할 것입니다. 시범으로 올해부터 지역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 개설했습니다. 내년부터 더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전시 공간 일부를 제공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동우회, 단체, 개인, 가족 등 자연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박물관 전시장 일부를 꾸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을 다녀간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을 다녀간 뒤 그 입장권을 협약을 맺은 전시관에 가지고 가면 입장료나 기념품을 할인받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예사, 직원과 도슨트 및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더 자연사박물관답게 만들어 갈 것이며, 어린이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돕고, 주민과 동반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02 자연사이야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다녀와서

정종철 학예사

2024년 8월 마지막 주 공동학술조사를 위해 경상남도 남해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매년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에서 주최하는 공동학술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자연사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5일간 남해 여러 섬에서 한여름 곤충인 유지매미, 참나무산누에나방 등 곤충과 식물, 버섯,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들의 종류와 생태에 대해 조사 하였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는 곤충, 해양생물, 양서·파충류 전문가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남해 지역 조사는 아침 6시부터 여러 항구에서 열리는 어판장에 출하된 해양생물 조사로 시작됩니다. 현지에서 잡히는 해양생물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각각의 생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오전 식사 후 사전에 선정된 조사 지역에서 다양한 곤충을 채집하고, 촬영하고 기록합니다.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해양생물, 양서류, 파충류 등을 조사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발전기와 곤충채집 전용 등기구를 이용하여 야간에 활동하는 나방, 딱정벌레 등 곤충을 채집하거나 바닷가 해변에서 야간 해양생물 채집을 합니다. 채집된 생물들은 박물관에서 정밀 조사를 통해 과거(2014년)에 조사되었던 생물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조사 일정은 밤 12시가 되어야 끝나는 고된 일정이지만 우리 박물관은 2007년부터 매년 공동학술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학술조사를 시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에서는 회원기관 간 생물다양성 자원 발굴·조사 등 학술연구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2회(5월, 8월) 공동학술조사를 운영합니다. 공동학술조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10년 주기로 기후변화, 환경변화, 인간의 영향에 의한 생물상, 지질변화를 조사합니다.



▲ 2012년 독도 공동학술조사


▲ 2023년 제주도 공동학술조사 - 팔색조 촬영

경주국립공원, 다도해 지역(여수, 남해), 강화도, 강원 고성, 신안 비금·도초도, 울릉도·독도, 제주도, 남해, 태안군, 추자도 지역에서 학술조사가 시행되며 조사 분류군은 식물, 곤충, 조류, 해양생물, 담수어류, 균류·미생물, 지질·지형·화석·고생물, 기타(양서·파충류, 대형 포유류 등) 등 8개 분야로 기관연합에 속한 분야별 자연사 분야 전문가들이 1회에 80여 명이 참가합니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2024년 현재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정보를 연구하는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대학, 사립박물관 및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가생물다양성 네트워크 협의체입니다.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생물상 변화를 GBIF[1](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및 NARIS[2](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진과 조사생물목록을 공동학술조사 결과보고서로 제작합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 조사 결과 2만 5천여 건이 GBIF에 하였으며 수년간의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학술적으로 소중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신종 여러 종과 국내 미기록종 다수를 발견하여 국내 생물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학술조사로 전 세계 연구자와 자연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연구자들 간의 정보 교환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연사 전문가들이 일주일간 합숙을 통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가진 채집 방법, 연구 방법 등을 공유하며, 전공 분야 이외의 자연사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연사 분야는 매우 광대한 분야라서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 이외에 접하기 힘들었던 정보를 공유하며 각 기관이 가진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기관에서 전시, 연구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자 본인의 역량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공동학술조사가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공동학술조사시작 초기(2007년)부터 참여하여 다양한 자연사 정보를 GBIF에 3,330건, NARIS에는 4,372건의 국가 자연사 정보를 구축하여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주기의 학술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수집된 자료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 인간 생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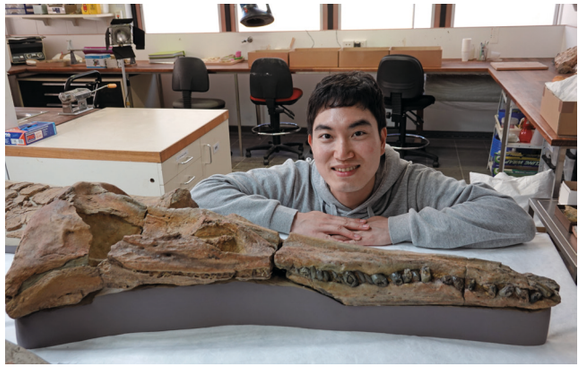
1)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 생물 주권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 부각에 따라 생물다양성 정보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제 거대과학 프로젝트로 2001년 OECD에서 분리·설립된 독립법인이며, 한국은 2001년 가입하였습니다. 107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4년 4월 현재 29.9억 건의 전 세계 생물다양성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755만 건의 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www.gbif.og).

2) NARIS(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의 한국사무국(KBIF, 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에서 운영하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은 국내 자연사 관련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연계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사 정보(생물, 지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57,576건의 생물자원통합 DB 구축량은 13,800건의 생물종정보, 592,109건의 표본정보, 665,457건의 관찰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www.naris.go.kr).

03 전문가 기고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하며

이성진 박사(서울대학교 고생물학연구실)



▲ 이성진 박사(서울대학교 고생물학연구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24년에 논문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새를 제외하고) 공룡의 학명이 공식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명명자는 윌리엄 버클랜드(William Buckland)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명명된 공룡은 메갈로사우루스(Megalosaurus, "거대한 도마뱀"이라는 뜻)라는 쥐라기(Jurassic Period) 후기의 거대 육식공룡입니다. 메갈로사우루스의 이름이 지어진 이때를 공룡 연구의 시작점으로 여겨서, 2024년인 올해가 공룡 연구 20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갈로사우루스의 이름이 지어질 땐 아직 "공룡(dinosaur)"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룡, 정확하게는 "dinosaur"라는 용어는 1842년 영국 자연사박물관 초대 관장인 리처드 오웬 경(Sir Richard Owen)이 그전까지 알려진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Iguanodon,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 힐라에오사우루스(Hylaeosaurus, "숲에 사는 도마뱀"이라는 뜻) 세 종류의 "화석으로 남은 거대 도마뱀"을 묶어 부르기 위해 만들어 냈습니다. 공룡이라는 단어보다 공룡 연구의 역사가 더 긴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룡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 공룡 연구 초기에는 공룡을 도마뱀의 한 무리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룡 연구는 재미있게도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오해였지만, 지난 200년 동안 공룡 연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메갈로사우루스 이후 천 종이 넘는 공룡이 명명되었고, 현재 고생물학자들은 첨단 기법까지 동원하여 공룡 화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룡 연구의 발전 과정이 200년 동안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룡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후 화석으로 발견된 여러 동물의 커다란 복원 모형이 영국에 전시되자, 공룡을 비롯한 화석 생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석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발굴을 주도한 미국의 두 고생물학자인 오스니엘 마쉬(Othniel C. Marsh)와 에드워드 코프(Edward D. Cope)는 뼈 전쟁(bone wars)이라고도 불리는 격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트리케라톱스(Triceratops)와 스테고사우루스(Stegosaurus) 등 많은 유명한 공룡이 이때 발견되었지만, 두 사람은 상대방보다 빨리, 많은 신종을 보고하려는 욕심 때문에 발굴을 방해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쉬와 코프는 파괴적인 발굴로 화석에 손상을 입히고, 잘못된 복원을 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지탄받을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기가 지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상황이 나아지는 듯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티라노사우루스(Tyrannosaurus)라는 현재 가장 유명한 공룡이 발견되었고, 몽골 고비사막에서 프로토케라톱스(Protoceratops)와 벨로키랍토르(Velociraptor)를 비롯한 많은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등 공룡 연구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전 세계가 커다란 전쟁에 휩싸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중단되었고, 많은 화석 표본이 소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위기를 거친 후 공룡 연구는 1960년대부터 "공룡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이노니쿠스(Deinonychus)라는 육식공룡의 발견은 공룡이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과는 다르게 모두 느리고 정적인 냉혈동물(외온성 변온동물이 맞는 표현)이 아니라날렵하고 활동적이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노니쿠스의 많은 특징은 공룡과 새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1990년대 들어 중국에서 다수의 깃털이 달린 공룡 화석이 발견되며 새가 공룡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둥지에서알을 품거나 새처럼 잠을 자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서공룡과 새의 연결고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공룡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새가 공룡이라는 건 공룡이 모두 멸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룡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공룡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며 공룡 르네상스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나토베나토르(Natovenator, 유선형 몸을 가진 공룡, 필자가 명명한 공룡)

메갈로사우루스 명명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현재 어느때보다도 많은 연구자가 공룡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룡 연구 200주년인 올해에도 필자의 논문을 포함해 많은 공룡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룡 연구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연구를 넘어서, X선을 이용한 현미경이나 고성능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이전엔 알지 못했던 공룡의 생활상과 진화 과정을 밝히는 데 많은 연구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몇몇 공룡의 색깔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공룡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밝혀낼 수 있게 되어 티라노사우루스가 후각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 또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유선형 몸을 가진 반수생 공룡의 존재를 밝힌 바 있고, 앞으로도 공룡 연구에 이런 장비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룡 연구도 변화하고 있어, 미래 공룡 연구는 어떤 모습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 화석을 연구하는 모습

04 강연 후기

찬란한 멸종을 앞둔 어느 날의 박물관 나들이

2024년 8월 과학강연 <이정모의 자연사 이야기> 후기

변인희(과학강연 수강생)

처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알게 된 건 아이와 가기 좋은 나들이 장소 목록에서였습니다. 무더운 날 걸음마를 뗀 아이를 업고서 탁 트인 공간으로 들어섰던 장면이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후로 자주 가까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그리고 종종 먼 각종 과학관에도 들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제한 공간이 늘어나던 시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들를 수 있었던 시끌시끌한 주말의 박물관에서 위로마저 받아온 건, 개인적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놀이터의 모형 화석 곁에서 반나절이 넘도록 흙 놀이를 하고, 전시실에 머물기보다 공룡 미끄럼틀을 타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는 어느덧 자라서 제법 오래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때마침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멈췄던 과학강연이 다시 시작되어, 지난해부터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 강연'과 '전시 연계 과학강연'에 연이어 아이와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정모 관장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에 이어 국립과천과학관까지 관장을 지내면서 박물관과 과학관을 소통하는 장소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정모 관장님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재직하던 시절에는 과학자와 대중이 만나는 장인 과학강연을 기획했다고 해요.

강연 현장은 화면 너머 보았던 스타 과학자를 드디어 만났다는, 아이들의 들뜬 함성과 터지는 웃음, 엉뚱한 질문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야기보따리는 우주의 끝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푸른 바다가 품은 생명의 시작, 듣는 아이들의 눈망울도 빛나게 만든 공룡을 지나 멸종과 진화의 반복을 훑으며, 기후 위기에 닿을 때까지 풀어졌습니다.

이번 과학강연은 자연의 역사를 주제로 4주 동안 진행되었어요.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묵직한 진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떠한 경고보다도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고, 자연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나는 인류가 지속하는 지구를 꿈꿉니다."라는 또렷한 문장 다음으로, 과학자로 지나온 세월과 알아낸 사실들이 촘촘히 따라왔고요. 이정모 관장님은 그렇게 큰 시선을 전하면서도 "과학은 잠정적인 답일 뿐"이라며 곧장 한 걸음 물러나 시청각실을 빼곡히 메운 아이들이 상상할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비워지면 다시 채워져 온, 지구에 사는 어른으로 우리가 불러온 기후 변화로 대멸종이 앞당겨지지는 않도록 더 버티고 싶어졌어요. 환경의 변화를 건너지 못했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침표도 울림이 컸습니다.

겨울날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작은 새를 만났을 때 구멍 뚫린 골반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물관 2층 모서리 코너의 붉평치를 유심히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물관 근처에 공룡고기(!) 맛집이 있다는 사실 등 지난 4주 동안의 강연에서 작지 않은 발견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다가올 계절에도 일상의 중력을 거스르며 어스름한 저녁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올라야겠습니다. 불 꺼진 박물관의 환한 문을 열고, 낮의 박물관을 새로이 채우는 과학자들의 오늘을 만나기 위해서요. 아이와 함께인 시점으로 글을 쓰게 되었으나 누구나 지구 가열화 시대의 이 열띤 나들이에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덧붙입니다.



▲ 2024년 8월 과학강연 <이정모의 자연사 이야기>

▲ 공룡에 대한 3가지 오해





▲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룡을 먹고 있을까?

05 교육

9월 과학강연 <공룡 연구 200년>

올해 세계 공룡 연구 200주년을 맞이하여, <공룡 연구 200년>이라는 주제로 공룡학자를 모시고 강연합니다.



- **교육대상 :** 청소년 및 성인 60명
- **교육내용 :** '공룡 연구 200년' 등 4개 강연
- **모집일정 :** 2024. 8. 27.(화) 10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4. 9. 5.(목)~9. 26.(목)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120분)
- **장　　소 :** 1~3강 온라인(ZOOM), 4강 시청각실(1층)
- **수 강 료 :** 12,000원/강좌
  (연간회원 10,000원, 구민회원 8,000원)



수강료 면제 대상(전화문의)
수급자 가구,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자

※ 문의 02-330-8871

10월 박물관 탐구여행

자세한 전시장 설명과 함께 관람학습지를 풀어봄으로써 46억년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 **교육대상 :** 유치부 7세, 초등 1~6학년
- **교육내용 :** '저 투어' 등 10과목 14강좌
- **모집일정 :** 2024. 9. 20.(금) 10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4. 10. 12.(토)~10. 27.(일)
- **교육시간 :** 120분(유치부 90분)
  [10:00~12:00, 13:00~15: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전시실 및 제5교육실
- **수 강 료 :** 16,000원/인
  (연간회원 11,000원, 구민회원 10,000원)

※ 문의 02-330-8873

9월 가족과 함께하는 달보기

천문교육과 체험(달관측)을 통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 **교육대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교육내용 :** 천문강연, 천문공작, 천체관측, 천문시뮬레이션 관측 등
- **모집일정 :** 2024. 9. 2.(월) 11시~마감 시까지(예정)
- **교육일시 :** 2024. 9. 12.(목) 19:30~22: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및 주차장
- **수 강 료 :** 20,000원/인(연간회원 16,000원, 구민회원 13,000원)

※ 문의 02-330-8863



10월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과학도구(현미경, 망원경) 사용법을 교육한 후 관련 과학도구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대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2~4명)
- **교육내용 :** - 현미경, 작은 세상을 살펴보는 과학도구 : 현미경 조작 실습 및 프레파라트 제작
  - 망원경, 밤하늘 관측 과학도구 : 천체관측 기초 및 망원경 조작 실습
- **모집일정 :** 2024. 10. 7.(월) 11시~마감 시까지(예정)
- **교육일정 :** 2024. 10. 19.(토)
- **교육시간 :** 120분 [14:00~16:00, 19:00~21: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미나실(2층)
- **수 강 료 :** 25,000원/인

※ 문의 02-330-8863

06 전시

현재 전시 2024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3차 특별전시 '빠져보자 뼈없는 자들의 바다로~'



- **기　　간** : 2024. 8. 20.(화) ~ 11. 10.(일)
- **장　　소** : 특별전시실(1층)
- **주　　관**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협　　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전시소개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고, 생물의 80%가 사는 바다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바다는 얼마나 깊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들 말고도 바닷속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척추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기가 작아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해 관심 밖의 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발목이 잠기는 얕은 해안 웅덩이부터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으로 물속을 탐험할 때 만날 수 있는 무척추생물과 해조류를 소개합니다. 전시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바닷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해 보세요.

※ 전시 기간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23회 기획전시 '공룡 다음, 인간'

- **기　　간** : 2024. 10. 15.(화) ~ 2025. 5. 28.(수)
- **장　　소** : 기획전시실(2층)
- **주　　관**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전시소개

현재의 지질시대 공식명칭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입니다.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 지구의 기온이 유지되고 비교적 따뜻한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는 기온이 일정하지 않고,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델란드 대기 과학자 파울 크뤼천은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현재의 지구를 '인류세'로 제안했습니다. '인류세'는 인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구에 가장 늦게 출현한 인간이 빠르게 변화시킨 지구와 우리의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전시 기간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7 지난 행사

7월 라이팅 칠드런 '태양광 랜턴 조립 체험' 이벤트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서 밀알 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태양광 랜턴 조립 체험과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실태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10일간 총 1,02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때 만들어 주신 태양광 랜턴은 깜깜한 밤에도 전등 없이 생활하는 에너지 빈곤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7억 명은 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라이팅 칠드런 '태양광 랜턴 조립 체험'

7~8월 북파크 책 선생님이 읽어주는 '환경 동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북파크에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북파크 책 선생님이 환경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북파크에 오시면 노란앞치마를 입은 책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읽고싶은 책을 가져가서 '책읽어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드려요. 북파크 책 선생님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가 궁금하신 분은 박물관에 문의하세요.

☎ 02-330-8871



북	파	크		책		선	생	님	이		추	천	하	는	
‘	어	린	이		환	경		도	서	’					

※이 책들은 북파크 ‘추천도서’ 코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북파크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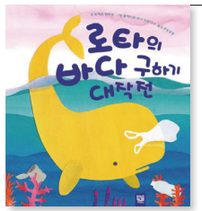




작지만, 위험한 빨대

엘리프 요낫 토아이 지음

20분사용,분해하는데에는200년이 넘게 걸리는 플라스틱 빨대. 작은 빨대를 통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타의 바다 구하기 대작전

로세르 림바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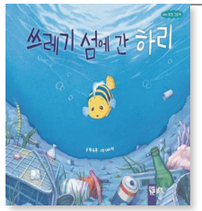
더러워진 바다를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로타! 지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이상한 물고기

나오미 존스 지음

물고기로 표현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로 환경 생태 감수성을 건드리는 꼬마 물고기의 바다 모험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섬에 간 하리

완두콩 지음

귀여운 꼬마 물고기 하리는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하리가 찾은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꿀벌 한 마리가

토니 디알리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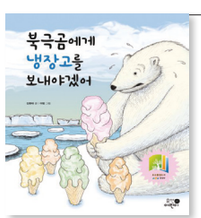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꿀벌의 힘!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달 샤베트

백희나 지음

아주 아주 무더운 여름밤. 하늘의 달도 녹아내려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밤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김현태 지음

북극곰 아이스와 북극의 동물친구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경쾌하게 펼쳐낸 환경 동화 그림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스크림

마수드 가레바기 지음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북극곰을 위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모였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북극곰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08 새소식

9월 카페 안산(CAFE ANSAN) 오픈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매일)



카페 안산(CAFE ANSAN)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은 박물관 내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며 비 관람객은 테이크아웃을 하시거나 카페 외부 데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 고객의 편의를 위해 캔 포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명소인 카페 폭포 2호점으로 오픈한 카페 안산에 박물관 관람객분들과 안산 산책길에 오르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9월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안내(나무홀)



자연사박물관 지하 중층에 위치한 나무홀은 관람객의 휴식 공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내부에는 식당이 없으며 대신 도시락을 가져오시면 나무홀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9월부터 나무홀에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음료와 스낵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09 관람안내

관람시간
- 3 ~ 10월(하절기) 평일 9:00 ~ 18:00 공휴일 9:00 ~ 19:00
- 11 ~ 2월(동절기) 평일 9:00 ~ 17:00 공휴일 9:00 ~ 18:00

입장 및 매표마감 : 폐관 1시간 전

휴관안내
-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안내
- 개인관람 : 예약 없음, 관람인원 및 시간제한 없음
- 단체관람 : 예약 필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단체관람안내)
- 전시장 음료반입 금지, 나무홀 취식가능(배달음식 금지)
- 무료관람 대상자 : 홈페이지 참고(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관람료)

전시해설 안내
- 도슨트 전시해설 : 오전 11시, 오후 2시(주말·공휴일 오후 4시 추가 운영)
-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 주말, 공휴일, 방학 중 비정기적 운영

연간회원제
- 연간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입장,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세요(namu.sdm.go.kr).

카카오톡채널 안내
- 카카오톡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하고 소식을 받아보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카카오톡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11시30분 이후)

대중교통 안내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 출구 - 마을버스 서대문 03번 환승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 출구 - 버스 7738번 환승
- 버스 110번, 163번, 7017번, 7720번, 7738번
-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02-360-8685)

순환 셔틀버스 시간표

주소 문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연희동)
- 대표전화 : 02-330-8899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